

NEWS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광주시, 첫 추경 ‘민생경제 중심’ 4807억원 편성

▶1면 ‘1농협 1사업’서 계속

최근에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 출하 체계를 갖춰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줄이고 있다.

유통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성장형 모델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순천원에농협은 연면적 1500㎡ 규모의 저온유통센터를 신축 중이다. 선별장, 냉장창고, 포장시설이 함께 들어서 하루 20t 규모의 채소를 처리할 수 있다. 전체 사업비의 60%는 순천시가 지원했으며, 인근 강진·보성 농협과의 공동 유통망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전남본부는 각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업 구조를 통합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중앙회와 경제지주, 시·군지부 등과 정례 회의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농협 간에 확산시키는 구조도 갖췄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수확량 증가, 노동력 절감, 수취가격 안정 등 농가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지자체와의 공동 투자 구조를 통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농촌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소득 정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만큼, 각 농협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표사업을 선정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범농협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표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면 ‘민주 내년 지선’서 계속

때문에 경선에서 당심과 다른 후보자가 선출되면 본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저해해 선거를 망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처음으로 권리당원의 표심을 20% 반영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호남과 달리 수도권에서는 당원들의 표심 반영 비율을 높여 본 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을 끌어내 승리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경선에서 국민 표심보다 권리당원 표심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 “늦어도 8월에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되고,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예산 대비 6.3% 증가 8조850억 규모…시의회 제출

돌봄·공동체 등 4대 분야 중심 하반기 정책 추진 박차

광주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4807억원을 편성해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의 2025년도 총예산 규모는 본예산 7조6043억원 대비 6.3% 늘어난 8조850억원이 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민생경제, 미래투자, 돌봄·공동체,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하반기 시장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상생카드 할인(13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이자 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구조고도화자금(100억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1억원) 등 예산을 편성했다.

AI(인공지능)와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9억원),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등 예산을 반영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5억원), 영유아 보육료(217억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4000만원), 통합건강센터 운영지원(8000만원) 등 저출생·사회적약자 지원에 힘을 썼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9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고,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환경 인프라(G-패스, 자연

거마울 등)에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다.

‘책 읽는 광주’ 조성을 위해 대표도서관(100억원), 하남시립도서관(8억원), 골목길 문화사랑방(10억원) 등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며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실·국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세입 증가분 확보 및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특히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하

는 차환을 통해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1회 추경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실·국별 자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제15회 새마을의 날’ 12일 광주 남구 호천물빛노닐터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화합 한마당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내일까지 최대 100mm 비…재난 대비 ‘만전’

지자체, 빗물받이·하수관로·맨홀 등 점검

제주를 시작으로 정마가 예고된 가운데 광주·전남은 13일부터 이틀 간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15면

이에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은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재난 예방 대비에 나선다.

12일 전남도와 광주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13일 새벽부터 14일 낮까지 20~80mm 상당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 등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오겠다. 특히 14일 새벽 남해안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비가 내리면서 30도를 웃돌던 기온은 낮

기온은 22~28도로 다소 낮아지겠다. 다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는 잠시 주춤하다 15일 오전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음달까지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호우, 태풍, 산사태, 폭염 등 자연 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옆이나 집 앞 등 주변 빗물받이 덮개가 쓰레기나 흙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즉각 알려달라고 광주시는 요청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 실국,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자연재난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4월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의 달’로 지정하고 하천, 산림, 농업, 한방, 지하공간 등 분야별 재해 취약 시설 5만131곳을 점검했다.

시군은 태풍과 호우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하천변,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 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 통제, 주민 대피 조치를 한다.

순천시는 최근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3만곳을 점검하고 삼승 침수 구역 374곳에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했다.

목포시도 총 867km에 달하는 하수관로와 하수 맨홀 1만8500여개 등을 점검했다. 80km 하수관로 내부 퇴적물과 1만8000여개 빗물받이 이물질도 제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에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건립하자”

시의회 정책토론회서 제안…소송기록 보존·공유 필요

광주에도 일제 강제동원 시민역사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광복 80주년, 일제 식민지 역사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전후 청산을 위한 대일 소송 투쟁을 선도해 왔고,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 관련해 팔복할 만한 발자취를 남긴 곳인 만큼, 방대한 소송 기록 등을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국내 일제 전쟁유적이 사유화되거나 방치·오용되고 있다”며 “일제 전쟁유적을 반전 평화교육의 장이자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광주 가네보 방직공장에 동원된 8명의 피해자 구슬을 통해 당시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보존·공유할 역사적 필요성을 밝혔다.

다큐멘터리 ‘금주의 유산’을 제작한 흥진선 광주MBC PD는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이끌었던 고 이금주 회장의 대일 투쟁을 다큐멘터리로 소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광주는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중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일 소송 투쟁을 선도해 왔는데, 대일 소송 기록들이 아직 온전히 보존될 장소나 방치·오용되고 있다”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 강제동원역사관 건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李대통령, 재계 총수 면담…경제활성화 모색

이재용 등 5대 그룹 회장·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만인 13일 재계 총수들과 처음으로 만나, 가라앉은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한다.

대외적으로는 국제 무역 갈등의 심화, 대내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등 이중고에 놓인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주)JH금속은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물류시스템으로
국내최고가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광주·전남 유일의 관 이음식 생산공장






- ✓ 세계 최대 소재(주물)공장
- ✓ 최고 품질의 소재
- ✓ 최신 자동 가공설비로 완벽한 품질의 국산 제품 생산

서울·부산
물류센터 운영

국내
최대 기업

전국
당일배송



(주)JH금속
MECH <http://www.jhmetal.co.kr>

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59 ☎ 062)955-2166 ☎ 062)955-2167
 서울(부산·울진) :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90번길 5 ☎ 031)312-2166 ☎ 031)311-2167
 부산(대구·울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135번길 37-1 ☎ 051)971-9027 ☎ 051)973-9027